

‘건설현장 화재’ 최근 5년간 3800건…소방청, 안전점검 실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 2958건…전체 78% 소방청, 소방관련법 준수 여부 등 점검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약 3800건의 화재가 발생해 56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2022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이다. 이로 인해 56명이 숨지

고 279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났다. 재산 피해액은 약 1100억원이다. 건설현장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958건(78%)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적 요인 400건(11%) ▲기계적 요인 79건(2%)으로 뒤를 이었다. 발화원은 ▲용접

1805건(48%) ▲담배꽂초 296건(8%) ▲전기적 단락 149건(4%)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은 전기·가스 사용, 용접·절단 작업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고, 피난구나 소방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건조한 봄철의 경우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5월까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불법 소방시설 공사 등 소방관련법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하고 위반사항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접작업 예정 시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접작업 시에는 소화기와 방치포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수칙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형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게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영어·일

본어·태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화재안전 매뉴얼도 보급한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건설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대형건축물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한미연합 ‘쌍룡훈련’ 실시 29일 경북 포항시 화진리 해변에서 한·미 연합 ‘2023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5년 만에 재개된 이번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 상륙군과 대형수송함(LPH) 독도함, 강습상륙함(LHD) 마진 아일랜드함 등 30여 척, F-35 전투기·육군 아파치 공격헬기(AH-64)·마린은 상륙기동헬기 등 항공기 7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50여 대 등 대규모 연합·합동전력이 투입됐다.

‘만취운전’ 도로 연석 들이받은 경찰관, 시민 신고로 들통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만취 운전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광주 경찰관이 시민 신고로 음주한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인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위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한 순환도로를 빠져 나오는 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112상황을 통해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경위는 연석을 들이받

고 주행하다 다시 멈춰섰다. A경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채혈을 요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검정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음주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형택기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60대 이상	합계
피해상당	458건 (5.2%)	2,471건 (28.3%)	2,683건 (30.8%)	1,920건 (22.0%)	1,191건 (13.7%)	8,723건 (100%)
사회관계망(SNS) 관련피해	3건 (0.8%)	30건 (8.4%)	87건 (24.3%)	90건 (25.1%)	148건 (41.3%)	358건 (100%)

전자상거래 피해 1년 새 15% ↑ 50~60대 SNS 쇼핑 2배 ‘급증’

패션·잡화·화장품 피해 늘어…거리두기 해제 영향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당은 총 8723건으로, 2021년 7586건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대의 피해가 급증했다. 이들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쇼핑물 구매 피해의 41%를 차지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상당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센터는 접수된 피해상당 중 32%에 달하는 2779건, 총 7억5397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고, 이 외에도 소비자와 판매자 간 중재를 통해 1432건의 계약이행, 146건의 교환 및 50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피해유형은 배송지연이 3084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음이 ‘계약취소·반품·환불’(2960건, 33.9%),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998건, 11.4%)였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2424건(27.8%)로 가장 많았고 ‘레저·문화·키덜트도이’ 1875건(21.5%),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999건(11.5%), ‘식품’ 666건(7.6%), ‘가구·생활·주방’ 509건(5.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의류와 신발·가방·패션·잡화·귀

금속, 화장품 품목 피해가 증가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재택근무 감소 등으로 외부 활동이 늘면서 관련 품목 소비와 피해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50대~60대 이상 피해상당이 총 1191건(13.7%)으로 전년 565건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광고를 통한 쇼핑 피해 총 358건 중 148건(41.3%)이 50~60대로 관련 매체를 통한 쇼핑시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 50~60대 소비자 SNS 관련 피해는 네이버밴드(57건, 38.5%), 유튜브(50건, 33.8%)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수의 외국계 SNS는 모바일 앱 게시판이나 이메일로만 문의할 수 있어 중장년층이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이러한 쇼핑물 중에는 한글로 운영되고 화폐단위도 원화로 표시되며 사업자가 한국 업체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등 해외에서 해외결제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NS 광고를 통한 쇼핑 피해 또는 기타 온라인쇼핑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